기획재정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7. 14.(목) 08:00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14일(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 금번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및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등 국내외 시장 주요 이벤트 시점에 맞춰,

- 국내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를 관계기관이 논의함

- 아울러, 코로나 시기 주식·채권시장 변화 추이 및 원인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을 공유하였음

※ (별첨) 방기선 제1차관 모두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재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조선형 (whwns56@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jiho88@korea.kr)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책임자	팀 장 임광규 (02-759-6834)
		담당자	과 장 배상인 (bsinicky@bok.or.kr)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거시감독팀	책임자	팀 장 이민규 (02-3145-8172)
		담당자	선 임 송하균 (larrysong@fss.or.kr)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책임자	본부장 정형민 (02-3705-6130)
		담당자	부전문 황재철 (jchwang@kcif.or.kr)

별첨 **방기선 제1차관 모두발언**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금융시장 동향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망 충격과 유가 상승 등이 중첩되며 유발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그 대응과정에서 금리상승 가속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도
인플레 상승과 경기둔화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높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최초로 기준금리 50bp 인상과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라는
국내외 시장 주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었고,
금리 인상 폭과 향후 인상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주가는 중국 증시 하락 전환 등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였으며(코스피: +0.47%, 2328.61pt)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며
하락(△5.2원/$, 1306.9원/$)하였습니다.
채권시장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회사채·CP시장 안정조치 발표 등에 힘입어
국고채 10년물(△4.8bp, 3.301%)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직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9.1%로
시장 예상(8.8%)과 전월 수준(8.6%)을 상회하면서,
'81.11월 이후 4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5.9% 상승하며
전월(6.0%)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5.7%)을 상회하는 등
전방위적 물가 압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연준의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1]과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美 증시가 소폭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상승(장기금리는 하락)하는 한편,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2]

---

1) 美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된 7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확률(FedWatch) :
[7.12일] 75bp 92.4%, 100bp 7.6% → [7.13일] 75bp 25.6%, 100bp 74.4%

2) (다우)△0.7%, (S&P)△0.5% (美 국채금리 10yr)△4bp, (美 국채금리 2yr)+11bp (달러)△0.1% 절하

【 정책 대응방향 】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이슈**에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나친 시장 쏠림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